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 Sermon Notes
Title: "8. The lukewarm church"
Scripture: Revelation 3:14-22
Date preached: December 14th 2025

Scripture: Revelation 3:14-22

14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of the Laodiceans write, 'These things says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15 "I know your works, that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I could wish you were cold or hot. 16 So then, because you are lukewarm, and neither cold nor hot, I will vomit you out of My mouth. 17 Because you say, 'I am rich, have become wealthy, and have need of nothing'—and do not know that you are wretched, miserable, poor, blind, and naked— 18 I counsel you to buy from Me gold refined in the fire, that you may be rich; and white garments, that you may be clothed, *that* the shame of your nakedness may not be revealed; and anoint your eyes with eye salve, that you may see. 19 As many as I love, I rebuke and chasten. Therefore be zealous and repent. 20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21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ran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as I also overcame and sat down with My Father on His throne.

22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 "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Review
Today we bring our study on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to a close. I hope you have enjoyed this series and found it to be both enriching and encouraging.

I'm sure you would agree that though these letters were written to real churches in a time and place very different to our own they still have much to teach us. Although the exterior changes the inner workings and motivations of human beings stays constant and unchanging. Christians have, and will always wrestle with the issues raised in these seven letters. We will return to this subject at the end of today's study.

The final church to receive a letter was the church in Laodicea. I think of the seven churches their condition is the best known. I think every believer knows that the church in Laodicea was...say it with me "lukewarm." Why do you suppose every modern Christian knows this? Well I have a theory. You might not like it! I think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is is the "ailment" most likely to afflict Christians today. If we stand back and survey much of the Christian world today we would

have to conclude that in so many places it's lukewarm, tepid, half-hearted and unenthusiastic. It's not burning hot with passion, but neither is it freezing cold and dead. It's in an insipid state somewhere between these two extremes. So perhaps the reason we are so familiar with the Laodiceans is that they are so much like us. But I get ahead of myself.

Before we look at the letter to the church in Laodicea let's review last week's letter. It was sent to the church in Philadelphia.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들었길, 그리고 유익하고 고무적인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들이 지금과는 매우 다른 시대와 장소에 있는 실제 교회들에게 쓰여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겉모습은 변할지라도, 인간의 내면과 동기는 변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곱 서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놓고 씨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씨름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신을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일곱 교회 중 그들의 상태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다 lukewarm"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익숙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의 많은 부분을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지근하고, 미온적이며, 무심하고, 열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얼음처럼 차갑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극단의 중간 쯤에 있는, 활기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잘 아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 보기도 전에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기 전에 지난주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Review

If you travel approximately 45 km (28 miles) south east of Sardis you will arrive in the “city of brotherly love” Philadelphia. The city came into existence in around 150 BC and was founded by King Attalus II. Strategically positioned along the major east to west highway the city was known as the “Gateway to the East.” It was also known by the nickname of “Little Athens” reflecting the fact that it was full of shrines and temples to the various pagan gods and goddesses.

As I told you last time the city was right at the heart of an area of tremendous seismic upheaval. Earthquakes, tremors and volcanic eruptions were part of everyday like for the citizens of Philadelphia. We know that the city was flattened in 17 AD but this was one of many such occurrences. It wasn't all bad, however. The volcanic ash made the soil incredibly fertile. This meant that fresh produce especially grapes flourished in that area. There were also a number of medicinal hot springs. People travelled great distances to enjoy the “spa resorts” of Philadelphia.

The church that existed in Philadelphia most likely dates back to the time of Paul, or one of his associates. All that the bible has to say about the church can be found here in chapter 3 of Revelation.

We can clearly infer from the letter that the church was having problems with their Jewish neighbours. These Jews, who were not really living to honour and obey God were working for, and

with Satan. They were doing all they could to make life hard for the followers of Christ.

We might also imagine that Christians in Philadelphia faced similar problems to other believers in Asia Minor. No doubt they were picked on and targetted for being different and having strict moral values. What would Jesus' assessment be of their church and what they were doing?

They had nothing to fear. The letter they receive has nothing negative to say about them. It would have been a great joy for the pastor to read such a letter out to his congregation.

The Lord Jesus, who describes Himself in the letter as being the one who is Holy and True is pleased (satisfied) with their efforts. They are by all accounts a church that is small in size and lacking in material resources. A church that one might assume to be weak and ineffective. However they have refused to let their diminutive size define who they are, and what they can do. They have remained faithful to what they were commanded to do and have defended and preached the name of Christ. What a wonderful example they present us. How we wish that Jesus could give our church such glowing compliments.
Jesus goes on to tell them that the “Jews” who are making life difficult will one day turn and acknowledge them as being the true people of God.

Then Jesus gives them a promise. The promise is that because they have been faithful and have persevered He will keep them from the “hour of trial.” As I said last time this is I believe a reference to the seven year tribulation. It is strong evidence suggesting that Christians will be taken up in the rapture prior to the start of the tribulation period. This is because God loves us and wants to spare us the horror of this time.

Our saviour goes on to give them further encouragement. He urges them to finish the race well and thus ensure they receive the crown of life, or the rewards their efforts are due. They are promised a place and position in God's temple and in the New Jerusalem to come. This is the home to which all true believers belong. This is where all who love and serve the Lord Jesus will spend eternity. What a great comfort this would have been to Christians living in those uncertain times. They knew that God had reserved a place for them. They truly belonged to, and with Him. Whether they joined him tomorrow, next week of in twenty years time they had that glorious assurance.

The Lord Jesus offers us that same promise. If you have not secured your place with Him in eternity then I implore you not to delay. Repent of your sins and trust in Christ today.

Today we are travelling to Laodicea.

사데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28 마일) 가면 "형제애의 도시" 필라델피아에 도착합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50 년경 아탈루스 2 세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동서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를 따라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 도시는 "동쪽으로 가는 관문"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작은 아테네"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다양한 이교 신과 여신을 모시는 사당과 신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잦은 지진 활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는 지진, 진동, 화산 폭발이 일상이었습니다. 서기 17 년에 도시가 파괴된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화산재가 토양을 매우 비옥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농산물, 특히 포도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효가 있는 온천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필라델피아의 "스파 리조트"를 즐기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마도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에 의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은 요한계시록 3 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그 지역 유대인들이 교인들을 괴롭게 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사탄을 위해, 그리고 사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의 그리스도인도 소아시아의 다른 신자들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르고 엄격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핍박 받고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회와 행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서신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가 회중에게 그러한 서신을 읽어주는 것은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노고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규모도 작고 물질적 자원도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약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받은 대로 충실히 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옹호하고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본보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처럼 뜨거운 칭찬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유대인들"이 언젠가 돌이켜 그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충실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시험의 때"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7년 환난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u>환난이 시작되기 전에</u> 휴거로 데려가실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공포의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더 격려하십니다. 그들이 경주를 잘 마치고 생명의 면류관, 즉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다가올 새 예루살렘에서의 지위를 약속받습니다. 이곳은 모든 참된 신자들이 속하게 될 집입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보낼 곳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해 두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분께 속했고,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이든, 다음 주이든, 아니면 20년 후든,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원 속에서 그분과 함께할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늘은 라오디게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u>Introduction to Laodicea</u>
Well our journey is almost over. We have travelled around the seven cities in a clockwise loop starting at Ephesus. We will end our little jaunt around ancient Asia Minor by visiting the city of Laodicea. Let's begin by locating our destination on the map.

Laodicea was located approximately 64km (40 miles) south east of Philadelphia. Situated in the Lycus River valley Laodicea had two nearby neighbours (sister cities). Colossae was 16 km to the east and Hierapolis was about 10 km to the north. Laodicea is built on a high rocky plateau which made the city very difficult to attack. It's Achilles heel however was that it did not have a good clean water source nearby. I shall return to the subject of water when we look at the letter itself.

Today there are an extensive range of impressive ruins to see. The first century city covered an area of around 5 square kilometres and was laid out in a grid like system. Many of the fine public buildings were built out of shining marble for which the area is famous. This marble sparkled and glistened in the sun. The city boasted of many grand buildings including a 25,000 seater sports stadium, a theatre that could accommodate 12,000 people, a large market place, numerous temples, public baths, statues to the pagan gods and goddesses and even public toilets.

Its location meant that it controlled the trade that flowed down the Lycus River. It was also located at a place where three important roads met. This led to the city becoming a wealthy and prosperous place. It was one of the richest cities in the region. This wealth led to the city having the reputation for being proud and self-sufficient. In 60 AD the city was devastated by an earthquake. The Roman emperor offered financial help with the rebuilding but the city refused any outside help. They told the emperor they would rebuild the city themselves, which they duly did.
The wealth and comfortable life style the city offered made it a favourite place in which to retire. It was the Florida of the ancient world!
Most visitors who visit the remains of ancient Laodicea today stay in the nearby city of Denizli.
Let me tell you a little about the history of Laodicea.

라오디게아에 대한 소개

자, 이제 여행이 거의 끝나갑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시계 방향으로 일곱 도시를 돌아봤습니다. 고대 소아시아 여행의 마지막은 라오디게아입니다. 지도에서 목적지 부터 찾아 봅시다.

라오디게아는 필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64km(40 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리쿠스 강 계곡에 위치한 라오디게아에는 두 개의 이웃 도시(자매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동쪽으로 16km, 히에라폴리스는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높은 바위 고원에 자리 잡고 있어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의 최대 약점은 근처에 깨끗한 식수원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서신을 살펴볼 때 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에는 다양한 인상적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1 세기에 그 도시는 약 5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격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명물인 빛나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훌륭한 공공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이 대리석은 햇빛 아래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 도시에는 2 만 5 천 석 규모의 스포츠 경기장, 1 만 2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 대규모 시장, 수많은 사원, 공중목욕탕, 이교 신과 여신의 조각상, 심지어 공중화장실까지 수많은 웅장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위치 덕분에 리쿠스 강을 따라 이루어진 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 개의 주요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하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부 덕분에 자부심이 강하고 자립 가능한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서기 60 년, 이 도시가 지진으로 황폐해졌었고, 로마 황제가 도시 재건에 재정 지원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외부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도시는 부유하고 편안한 생활 방식을 제공한 덕분에 은퇴 후 휴양지로 선호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플로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고대 라오디게아 유적지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방문객은 인근 도시인 데니즐리에 머뭅니다. 라오디게아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e history of Laodicea

Compared to some of the other cities in that region Laodicea was not particularly ancient. It was founded by the Seleucid ruler Antiochus II in 250 BC and named after his first wife Laodice. At its height the population of Laodicea may have reached around 150,000.

In 133 BC the city became part of the Roman Empire. Under the peace that existed under Roman rule (the *Pax Romana*) the city flourished. It was famous for three things.

Firstly, it was a very important city for banking and finance (money and gold). It was apparently the banking centre for the geographic region of Asia Minor,

Secondly, it had a well deserved reputation for clothing and in particular its fine black wool. The ancient writer Strabo noted in his writings the beautiful black sheep that thrived in that area. The wool was sheared and used in the clothing industry. The factories in Laodicea turned out different kinds of clothing all made with this almost violet coloured glossy wool. It was we are reliably informed highly desirable. People back in the day were crazy for black wool cardigans from Laodicea. The Laodiceans turned this craze into a highly lucrative export business.

Thirdly, they excelled in the field of medicine. Laodicea was an important centre of ancient medicine. The nearby temple of the Phrygian god, Men Karou (the god of healing) had an important medical school associated with it. That school became famous for developing two health products. The first was an ointment used to cure sore ears. But by far the most notable achievement was their world-renowned eye salve known as the *tefra frigia*. For ease of export the salve came in the form of a solid tablet. This was ground down, mixed with water into a paste and then applied to the eyes. Both of these products were exported all over the Greco-Roman world.
As we shall discover all three industries, finance, wool, and the production of eye salve feature in this letter to the Laodicean church.

Let me finish up my introduction by saying a little about the church and religion in Laodicea.

라오디게아 역사

라오디게아는 주변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50 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 세가 건설했고, 그의 첫 번째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전성기 때에 인구가 약 15 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133 년,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로마 통치 하의 평화(팍스 로마나 the *Pax Romana*) 덕분에 번영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세 가지 면에서 유명했습니다.

첫째, 은행업과 금융(화폐와 금)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금융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 의류, 특히 고급 검은 양모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고대 작가 스트라보는 그의 저서에서 이 지역의 아름다운 검은 양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양들의 털을 깍아 의류 산업에 사용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공장들은 보라색에 가까운 광택이 나는 이 양모로 다양한 종류의 의류를 생산했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에 따르면 아주 질좋은 옷감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산 검은색 울 스웨터에 열광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러한 열풍에 힘입어 아주 비싼 가격에 옷을 수출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의학 분야에서 뛰어났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고대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근 프리기아 신, 멘 카루 Men Karou(치유의 신)의 신전에는 그와 관련된 중요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의과대학은 두 가지 의약품을 만들어 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픈 귀를 치료하는 연고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테프라 프리기아(tefra frigia)*로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었습니다. 수출의 편의를 위해 안약은 단단한 정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제를 갈아서 물에 섞어 반죽처럼 만든 다음 눈에 발랐습니다. 이 두 제품 모두 그리스-로마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금융, 양모, 그리고 안약 생산이라는 세 가지 산업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모두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종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서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Religion
The New Testament does not tell us anything about the founded of the church at Laodicea. Like the other six churches, it was most likely established during Paul's ministry at Ephesus (Acts 19:10). We can however say with certainty that Paul did not found it personally. We know this because when he wrote Colossians some years later he still had not visited Laodicea (Col. 2:1).

Since Paul's co-worker Epaphras founded the church in nearby Colossae (Col. 1:6–7), it is highly likely that he also founded the Laodicean church as well. We also know that Paul wrote a letter to the church in Laodicea. This letter has not been preserved.
Paul tells the churches in Colossae and Laodicea to read each other's letters (Col 4:16).

As regards pagan religions the city of Laodicea does not seem to be much different from the other six. It had numerous temples and shrines to the various Greco-Roman gods and goddesses. Archaeologists have found coins dating back to the 1st century which depict pagan gods and goddesses such as Apollo, Isis, Zeus, Athena, Men Karou, Asklepios, Dionysus and Aphrodite. Ther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any great hostility or persecution directed at Christians. The worship of the emperor appears to have gone on but not to have been as rabid as in some of the other cities. We know from archaeological remains that they did possess a temple for the imperial cult.

So now with that useful background in place lets get into the letter itself.

종교
신약성경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여섯 교회 처럼, 이 교회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행 19:10). 그러나 바울이 직접 이 교회를 세우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이 몇 년 후 골로새서를 썼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골 2:1).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인근 골로새에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골 1:6-7), 그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설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편지는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로의 편지를 읽으라고 말합니다(골 4:16).

이방 종교의 측면에서 라오디게아는 다른 여섯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그리스-로마 신과 여신을 모시는 수많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아폴로, 이시스, 제우스, 아테나, 멘 카루, 아스클레피오스, 디오니소스, 아프로디테와 같은 이교 신과 여신이 묘사된 1 세기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큰 적대감이나 박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 숭배는 계속되었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극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이곳에 황제 숭배를 위한 사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용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of the Laodiceans write, 'These things says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We should at this point in our studies be experts on the structure of these ancient epistles. The seventh letter begins in the same way as the previous six. It is directed to the pastor or elder in the church of Laodicea. He is tasked with carrying this letter and sharing its contents with his flock.

We then come to our final unique introduction to the Lord Jesus Christ. We are told three specific things about Him here. He is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and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Let's consider each of these in turn.

Jesus identifies Himself first as "**the Amen**." Today we commonly close our prayers by saying "amen," in some congregations people say "amen" when they are in strong agreement with what the preacher is proclaiming. So the word "amen" can be seen as a verbal agreement, an affirmation that something is true or right, or an expression desiring that what has been expressed comes to pass (may it be). It's a powerful word and not one to be used lightly or flippantly. So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Jesus is the Amen?

This is the only time in scripture that this title is used of Jesus. It is however reminiscent of what we read in Isaiah chapter 65. In verse 16 of this chapter God is twice called the "**God of truth**" (in Hebrew this is the "God of Amen"). "Amen" is a transliteration of a Hebrew word meaning "truth," "affirmation," or "certainty." It refers to that which is firm, fixed, and unchangeable. Such a description certainly applies to our Lord and Saviour. The story of salvation also reaches its conclusion in Jesus. He is God's perfect and final revelation. Therefore we can say "Amen" because in Jesus we see the full and complete picture. Salvation comes only through the person and work of the Lord Jesus Christ.

This notion or reliability and assuredness is emphasised by Jesus telling us that He is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Jesus not only speaks the truth but He is the truth. The word true here might also be thought of as meaning "reliable," or "trustworthy." Jesus is wholly reliable. We can fully and completely believe everything He says.

Here is something for you to consider. How many people do you know who would tell you the absolute truth about yourself?
Wouldn't most of them back away and try to give you the answer they think you want to hear.
Or else try to water down or moderate their answer. Not so the Lord Jesus. He never swerves from the truth, tries to sugar-coat it or waters it down. He gives it to us straight! We are lost and dead in our sins. We need Him.

This description of Jesus being both faithful and true stands as we shall soon see in stark contrast to the Laodiceans who were neither faithful or true.

Finally, Jesus describes Himself as being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The English translation here is a little misleading. It could be read and understood in two different ways. Some false teachers have misread what is recorded here to argue that Jesus was the first created being. They claim that the first person that God the Father created was Jesus. This would mean He could not be divine. For God to be God He must be an eternal uncreated being. Fortunately such ambiguity does not exist in the original Greek. The meaning is plain and simple. What John means here is that Jesus is the source or origin of creation (Rev. 22:13). Through His mighty power everything was created. This is affirmed for us in John's gospel (John 1:3).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was made. (John 1:3)

So the take-away here for the Laodiceans is this. This message is coming from God Himself. He is the truth as well as being the conveyor of the truth. Therefore they need to sit up and listen.
Let us continue.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쯤 우리는 고대 서신들의 구조에 대한 전문가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서신도 앞의 여섯 서신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나 장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는 이 서신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교인들에게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독특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분에 대해 세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분은 **아멘 the Amen** 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아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아멘"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어떤 교인들은 설교자가 전하는 내용에 깊이 동의할 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언어적 동의, 무언가가 진실하거나 옳다는 확언, 또는 언급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단어로 가볍게 사용하거나 경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멘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구절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65 장의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16 절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진리의 하나님 God of truth**"(히브리어로는 "아멘의 하나님 God of Amen")으로 불립니다. "아멘"은 "진리", "확언", 또는 "확신"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음역입니다. 이는 확고하고,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분명히 우리 주 구세주께 적용됩니다. 구원의 이야기 또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림을 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옵니다.

이러한 신뢰성과 확신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여기서 '참된 true'이라는 단어는 "믿을 만한"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 절대적인 진실을 말해줄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대답을 듣기 좋게 포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미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길을 잃고 죽었다.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이러한 묘사는 곧 알게 되겠지만, 충성되지도 참되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사람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창조의 근본**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으로 묘사하십니다. 이 영어 번역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거짓 교사들은 이 표현을 오해하여 예수님이 최초로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존재가 예수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려면, 그분은 결코 피조물이어서는 안됩니다. 다행히도 그리스어 원문에는 그러한 모호함이 없습니다. 의미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 또는 기원이라는 것입니다(계 22:13).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요 1:3)에서 이를 확증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메시지가 하나님 자신에게서 직접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진리이시며 진리를 전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깨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15 “I know your works, that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I could wish you were cold or hot.

Sometimes when people aren't looking we do naughty things. We walk on the grass when the sign say not to. We put our garbage in the wrong recycling container. Or perhaps we converse a little too loudly in the public library. Now, we might get away with these heinous sins here on earth because no authority figure caught us. But Jesus reminds us here that NOTHING escapes His attention. He has been carefully watching what the Laodiceans have been doing. And, He has not been impressed. His assessment of their condition is that they are neither hot nor cold. To expand a little upon that they are “lukewarm” meaning half-hearted, unenthusiastic and unmotivated. Simply put they had lost their vigour. Perhaps they wrongly believed they could steer a middle course that meant they would be able to remain Christians whilst also appeasing the pagans who called upon them to blend in and worship the emperor.

To properly unpack this verse I need to tell you a little about the water situation in Laodicea. As I said in the introduction the city was well positioned geographically, but lacked a good fresh water source.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was to bring the water in from Hierapolis 10km away. Their water source was good and reliable. However having an overground aqueduct was problematic. It could easily be destroyed or tampered with by ones' enemies therefore they came up with an ingenious solution.

They built an elaborate system of underground pipes, some of which can still be seen today. Now Hierapolis is in a geothermal area. The water that came out of the ground was boiling hot. Boiling hot water is very useful. The people in Hierapolis enjoyed relaxing hot baths. But by the time the water it had run down the pipes for 10km it was no longer boiling hot. It was lukewarm, or tepid. It was not much good for anything. Worse still upon the journey the water gathered dirt and calcium carbonate deposits. It really was not good for drinking.
I heard a pastor tell about an experience he had whilst serving in the military in Aden (Yemen). They found a water source in the desert that emerged through a deposit of epsom salt. As it emerged from the ground it was very hot and was safe to drink. Apart from the fact that it burnt your mouth of course. You could also take the water away and place it in the fridge. When it was very cold it was also safe to drink. However if you let it cool down a little and drank it whilst it was lukewarm it acted as an emetic and made you vomit. Anyway back to the account.

The Lord Jesus then says something that might strike us as being rather strange. He tells them He would rather they were hot ot cold. Now obviously Jesus wants us to be on fire for Him. He desires that we have a burning desire to be close to Him, read His Word and share the gospel. So we can understand the call for us to be hot.
As a church we might even say that lukewarm Christians are better than cold Christians. At least

they have some warmth towards Christ and the church. So why does Jesus say he'd rather the Laodiceans were cold? What benefit we might wonder is there to being cold?

Well, simply put lukewarm Christians are an insult to the Lord. Following Jesus is not a game, or something to be done half-heartedly. It's a matter of life and death. You're either in or out, there is no sitting on the fence. A lukewarm Christian by defintion is indifferent. The world respects (though might not like) a Christian who has passion and enthusiasm. It despises one who doesn't really care. So what use is wishy washy Chistian or a believer in name only.

Also think for a moment about the attitude of a lukewarm Christian. They are satisfied and comfortable. They are happy to go through life without thinking anything is wrong. A cold person will eventually realise they are cold and uncomfortable. They will seek for a way to become warm. In a Christian context they will be open to a closer “warmer” relationship with God.

But perhaps the simplest explanation may be the best. Hot water is good for something as is cold water. Hot water relaxes and heals. Cold water refreshes. Lukewarm water is good for nothing. So Jesus is saying here that He wants us to be doing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It's a good question for us to ask ourselves. Are we hot, cold or lukewarm?

Let us find out what Jesus' response will be to the Laodicean church.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합니다. 잔디밭에 걷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걷습니다. 쓰레기를 재활용 용기에 버립니다. 공공 도서관에서 너무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잡히지만 않으면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갈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행위를 주의 깊게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들이 "미지근하다 lukewarm"는 것은 성의가 없고, 열정이 없고, 의욕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열정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중도 노선을 취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동시에 황제를 숭배하라고 부추기는 이교도들과 타협하여 그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고 잘못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라오디게아의 물 문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유리했지만, 좋은 식수원이 부족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수원은 양호하고 안정적이었으나, 지상에 만든 수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적들이 쉽게 파괴하거나 훼손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지하 수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지열 지대에 있어서 땅으로 솟아나는 물이 뜨거웠습니다. 끓는 물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사람들은 따뜻한 목욕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수로를 따라 10km 를 흘러 오다 보면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정도였고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로를 따라 흐르는 동안 흙과 탄산칼슘 침전물이 쌓여 식수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멘의 아덴에서 군 복무 시절 겪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엡솜 소금 퇴적층에서 솟아나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매우 뜨거웠고 마셔도 안전했습니다. 물론 입이 데었다는 사실은 빼고요. 물을 따로 담아 냉장고에 넣

어두고 아주 차가울 때 마셔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식어 미지근할 때 마시면 구토 작용을 해서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다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불타오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불타는 열망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뜨겁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차가운 그리스도인보다 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 온기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차갑기를 바라셨을까요? 차가운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장난이나 건성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둘 중 하나일 뿐이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정의상 무관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정과 열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존중합니다(물론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은 경멸합니다. 그러니 우유부단하거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삶에 만족하고 편안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면서 행복합니다. 차가운 사람은 자신이 차갑고 불편하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그들은 따뜻해질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기독교적 맥락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따뜻한" 관계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설명이 아마도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처럼 여러 가지에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긴장을 풀어주고 치유합니다. 차가운 물은 상쾌함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뜨거운가, 차가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6 So then, because you are lukewarm, and neither cold nor hot, I will vomit you out of My mouth.

You make me sick! I hope no one has ever had cause to say that to you. But sadly this is Jesus response to the tepid Laodiceans. Because of their lukewarm nature He will spew or vomit them out of His mouth. This is strong language. Some churches make the Lord weep, others make Him angry, the Laodiceans make Him wretch! Why do they make Jesus sick? It is their indifference and lack of usefulness. When we vomit we expel from our system things we have consumed that our body rejects or does not need. The same thing is happening here. The church in Laodicea offers nothing to the body of Christ and is therefore to be rejected.

Let us read on.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 때문에 속이 메스껍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것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본성 때문에 예수님은 입에서 그들을 토해 버릴 것입니다. 정말 강한 어조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주님을 통곡하게 하고, 어떤 교회들은 주님을 화나게 하며, 라오디게

아 교인들은 주님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토하도록 할까요? 바로 그들이 무관심하고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부하거나 필요없는 것을 먹었을 때 몸에서 내보내려고 토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됩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7 Because you say, 'I am rich, have become wealthy, and have need of nothing'—and do not know that you are wretched, miserable, poor, blind, and naked—

Sometimes in church we make jokes about certain members being rich. We note that they are able to go on multiple foreign holidays throughout the year, or buy expensive cars. But the truth is that the richest person in our whole church is poor when compared to really rich people like Elon Musk. According to Forbes, Musk has a net worth of $482 billion dollars. None of us are anywhere near his level of wealth. Acknowledging this realty helps us accept our own situation. We rightly conclude that whilst we may be comfortably off we are not rich.

Unfortunately the Christians in Laodicea needed this kind of reality check. The city of Laodicea was a rich and prosperous place. There were plenty of rich and successful businessmen and women. The church too probably had a fair number of wealthy members. No doubt these people gave generously to the church. From the outside the church gave every appearance of being a rich and successful institution. So what's the problem here?

There are two ways that we might measure "wealth." We can judge it through two particular lenses. A material and a spiritual lens.

Looking through the material lens the Laodiceans were indeed well off. They had all the material trappings. Nice houses, fine clothes, glittering jewellery and small dogs that fit in hand bags. But when looking through the spiritual lens they were not rich. They were poor. When Jesus assessed their spiritual condition He judged them to be badly lacking. To make matters worse they were blind to this reality. They thought that they were doing well and therefore needed nothing. They believed themselves to be "spiritually enlightened" and were therefore prideful and difficult to teach.

As a teacher I can tell you that the worst kinds of students are the "know-it -alls." It's almost impossible to teach people who think they have all the answers and know better than the teacher. This is what the people in Laodicea were like.

What Jesus has to say about them is scathing. They may give off the appearance of being smug and self-assured but Jesus is not fooled. I'm sure you all remember the story of the emperors new clothes written by Hans Christian Anderson. The prideful emperor in the story was tricked into walking out in public naked believing himself to be clothed in the finest attire. The church in Laodicea thought they were finely "clothed in Christ" but they were actually naked!

The Lord Jesus then reveals to them their true spiritual condition. They are wretched, meaning unhappy, miserable, poor blind and naked. Ouch! As the saying goes the truth hurts. What are they to do to change their condition? Let's read on and find out.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에서 우리는 가끔 어떤 교인들이 부자라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들이 일 년에 여러 번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고급 자동차를 사는 것을 언급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일론 머스크처럼 정말 부유한 사람들에 비하면 가난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4,820 억 달러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부의 수준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자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실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하고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부유하고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부유한 교인들이 꽤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교회에 아낌없이 기부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교회는 부유하고 성공적인 조직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부"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입니다.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반짝이는 보석, 핸드백에 쏙 들어가는 작은 개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셨을 때, 그들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이러한 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잘하고 있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영적으로 깨달았다"고 믿고 교만했기에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건대, 가장 나쁜 학생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듯 "잘난 체하는 아이들"입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고 선생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하신 말씀은 매우 가혹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잘난 체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쓴 왕의 새 옷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야기 속 교만한 왕은 속아서 자신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믿고 벌거벗은 채 공공장소에 나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옷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참담한 상태, 즉 불행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아야 Ouch! 속담처럼 진실은 아픕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읽어가며 알아봅시다.

18 I counsel you to buy from Me gold refined in the fire, that you may be rich; and white garments, that you may be clothed, *that* the shame of your nakedness may not be revealed; and anoint your eyes with eye salve, that you may see.

In order to change it required that the Laodiceans recognise their “spiritual poverty.” At the time they received this letter they were blindly foolish, arrogant and prideful. They were ignorant to their true spiritual condition. The truth is that people who are rich, or have all they need are unlikely to truly turn to the Lord for salvation.
The rich are often smug and self-reliant. They are safe and secure and therefore do not need God. This description certainly applied to the Laodiceans.

This is what Jesus means here when He tells them to “buy” from Him. There is no way in which we can buy or even barter for our salvation. We must come to the Lord Jesus and freely take what He is offering. Jesus is offering them an invitation to come and receive His grace. Salvation lest we ever forget comes through no other source than Jesus. In emphasising His point the Lord draws heavily

upon three pieces of imagery that would have resonated with these people.

Firstly, the Lord tells them to buy refined gold. Gold in other words that is pure and has no impurities. As I told you before Laodicea was a rich city. There was a great deal of money and gold swirling around that place. But it's not really gold metal that's in view here. It's faith. The apostle Peter described faith, approved by the test of fire, as being much more valuable than gold (1 Peter 1:7). This was what the Laodiceans really needed. They needed to recognise that genuine faith was far more valuable than material wealth.

Secondly, they needed to be clothed in the pure white righteousness that comes only through Christ. As I told you in the introduction Laodicea was famous for its glossy black wool. Here the colour black symbolizes the filthy sinful garments that clothe the unregenerate. This is not the attire to be worn by those professing to know and love God. Those who come in genuine faith to Christ shed these sin encrusted rags and are clothed in the beautiful white of Christ. When we are clothed in Christ our sins and nakedness is covered. God looks at us and sees Jesus.

Thirdly, Jesus tells them to anoint their eyes with eye salve so that they can see. Though they prided themselves on their "superior" spiritual knowledge, the Laodiceans were in fact spiritually blind. "Blindness" in scripture often represents a lack of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spiritual truth. Laodicea as I told you before was renowned for its eye salve. This treatment might help with your physical sight but offered no deeper cure or remedy for spiritual blindness. The Lord Jesus offers them the real cure. He offers them the salve that will forever wipe away the scales before their eyes and truly help them see.

Let us read on.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변화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영적 가난"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 그들은 대책없이 어리석고 거만하며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유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진정으로 주님께로 향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자들은 보통 잘난 체하고 자립적입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라 buy"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도, 물건으로 맞바꿀 수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것을 거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로 와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음을 결코 잊으면 안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점을 강조하시면서 그들이 공감할 만한 세 가지 비유를 활용하십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제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은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엄청난 돈과 금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관점은 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의 연단으로 입증된 믿음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베드로전서 1:7).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물질적인 부보다 훨씬 더 귀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순수한 백색의 의로움으로 옷 입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는 윤기 나는 검은 양털로 유명했습니다. 검은

색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입는 더럽고 죄스러운 옷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입을 옷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들은 죄로 뒤덮인 누더기를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흰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죄와 벌거벗음은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지식이 "뛰어나다"고 자랑했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멀었습니다. 성경에서 "눈멀다 Blindness"는 영적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약은 신체적 시력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적 실명에 대한 치유는 하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눈에 낀 비늘을 영원히 씻어내고 진정으로 볼 수 있게 해줄 안약을 제안하십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9 As many as I love, I rebuke and chasten. Therefore be zealous and repent.

Attitudes towards parenting have changed over time. The way modern couples parent their children is very different to how things were in the past. I'm sure we all parented somewhat differently to our parents. Whatever approach we took with our own children I think (hope) we all recognised the need to lovingly impose barriers and restraints. I know some liberals push the idea of letting children run free and do as they wish but such an approach only leads to disaster. The truth is that children do best when order and discipline are applied. In fact not to rebuke, discipline or punish when necessary is unloving. How can parents correct bad attitudes or behaviours is they are never properly addressed. Indeed if left unchecked they will only ever get worse. God is our loving Father and therefore we would expect that He too will correct and discipline those He loves.

This in essence is what the Lord Jesus is saying here. The church in Laodicea has gone off the tracks. It is acting up and in serious trouble. Therefore the Lord, as a good and loving parent must step in and act. To not do so would be unloving. This is the key take-away here; God disciplines because He loves.
In the case of the Laodiceans He acts because failing to do so would lead to the loss of the church.

God, however is always just and fair. They are given the chance to avoid His judgement.
If they are zealous (literally “hot”) or eager to repent of their sins and turn back to Him then He will forgive and restore them. The same chance is offered to all human beings.

Let us continue.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변했습니다. 현대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은 과거와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부모들과는 어느 정도 다른 방식으로 양육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양육하든, 우리는 사랑으로 제약과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압니다(바라건대).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런 양육은 재앙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사실, 절제와 훈육이 적용될 때 아이들이 가장 잘 자랍니다. 필요할 때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아이들의 나쁜 태도나 행동을 부모들이 제대로 훈육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바로잡고 훈육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부모인 주님께서 개입하여 행동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 징계하지 않으면 교회가 멸망할 것이기에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평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기회 또한 주십니다. 만약 그들이 열정적(문자 그대로 "뜨겁다 hot")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The Lord Jesus follows His urge for them to be zealous and repent with this beautiful invitation. The idea of Jesus “knocking at the door” is a very well known meme in Christian circles. We often use it in evangelism. Perhaps you've heard, or even used the idea yourself,
“The Lord Jesus is knocking at the door to your heart, won't you let Him in!”

But that's not really what's going on here. It's not the door of the heart that is in view here.

In this instance the Lord Jesus is standing outside the door of the Laodicean church. He's knocking on the door of the church. Inside are believers, albeit lukewarm. So the invitation is to open the door in order to let its leader and head enter. Isn't that a shocking thought. The idea that the head of the church is shut out or excluded.

Once again the Lord Jesus provides hope. Note very carefully what He says. If anyone, meaning any individual opens the door He will enter in. Opening the door here refers to the act of repentance and faith. This means that the repentance of just one person, whilst all the others may remain cold and indifferent is enough to admit the Lord.

Look also at the reward that is offered to such an individual, or indeed church if all repent in this way. Jesus tells them that He will come in. They are then invited to **dine** (eat) with the Lord Jesus. What does it mean to dine? It's a rather old fashioned and “posh” term. I doubt someone would say to you today, “If you are free on Friday let's dine together.” Today we would more commonly say let's have dinner, or lets share a meal. To “dine” speaks of fellowship, communion, and intimacy. We eat with people we care about. Sharing a meal in ancient times symbolized the union of people in loving fellowship.

We also know from scripture that believers will dine with Christ at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Rev 19:9), and in the millennial kingdom (Luke 22:16, 29–30).

So it is then a wonderful promise of a future time of fellowship and intimacy with our Lord and saviour. Let us read on an examine the next promise Jesus offers.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후에 이토록 아름답게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knocking at the door"는 표현은 기독교계에서 매우 잘 알려진 밈입니다.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이 표현을 들어보셨거나 직접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께서 들어오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논점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미지근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이자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문 닫힌 교회 밖에 계신다는 생각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누구든지 anyone, 즉 어떤 사람이든 문을 열면 그분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문을 여는 것은 회개와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차갑고 무관심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회개만으로도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러한 개인에게, 또는 모두가 이렇게 회개할 때 그 교회에 주어질 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님과 더불어 **먹도록 dine** 초대받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dine** 은 무슨 뜻일까요? 다소 고풍스럽고 "품위 있는" 용어입니다. 요즘에는 "금요일에 시간이 되면 함께 식사합시다 let's dine together "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저녁을 먹읍시다 let's have dinner, or lets share a meal "라고 말합니다.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교제, 친교, 그리고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고대에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계 19:9)와 천년왕국(누가복음 22:16, 29-30)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찬을 나눌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주 구세주와 교제하고 친밀하게 함께 할 미래의 시간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다음 약속을 계속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21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ran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as I also overcame and sat down with My Father on His throne.

Again we read the recurring motif of the believer who “overcomes.” This term has been used frequently throughout the seven letter. Simply stated what we are reading here is a promise offered to all believers who finish the race.
We might imagine that it would be enough, more than enough in fact just to be invited to dine (fellowship) with God. But even more is promised. The overcomer is invited to sit on Christ's throne and to reign alongside Him.

Hebrews 8:1 describes the Lord Jesus Christ's present position as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in heaven. He has occupied this place since He fulfilled God's plan of redemption (He **overcame**) and ascended back to the Father. But at some future time He will leave that glorious throne-room and return to earth to set up His millennial Kingdom.

During that time those martyred for their faith in Christ, along with all true believers will be given positions of authority in the Kingdom (Rev 20:4, 2 Tim 2:12). We will be given the privilege and honour of ruling with Him.

What a truly amazing experience that will be. Let us conclude our study with the following verse.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시 한번, "이기는 overcomes" 신자라는 주제가 반복됩니다. 이 용어는 일곱 편지 전체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구절은 경주를 마치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찬(교제)에 초대받는 것만으로도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그분과 함께 통치하도록 초대받습니다.

히브리서 8 장 1 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언급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고(**이겨내시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이후로 이 자리에 계속해서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장차 그분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돌아와 그분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한 자들과 모든 참된 신자들은 왕국에서 권세 있는 지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계 20:4, 딤후 2:12).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특권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 구절로 이 연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2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Verse 22 extends Jesus' final challenge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Minor. Listen and hear what the Holy Spirit is telling you. He was sent to help, trust what He tells you and obey God. If you do this you will build a church that properly pleases and honours the Lord. That same challenge extends to us, too.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 절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전체 교회에 경고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도전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Lessons to learn
Let us end this study by briefly reviewing each of the seven churches and seeing what we can learn from their condition.

배울 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일곱 교회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지 보겠습니다.

Ephesus
The church in Ephesus was praised by the Lord Jesus for her hard work, patience, perseverance and their strong stance against evil. These are commendable traits for any church to possess. However they were criticised for having lost their first love. They were doing good things but from a cold or passionless heart. We learn from this church that we must do all we can to keep our love for the Lord fresh and fervent. It is necessary that we are always actively pursuing Christ.

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 인내, 끈기, 그리고 악에 맞서는 굳건한 자세를 칭찬하

셨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칭찬받을만 했지만, 그들은 첫사랑을 잃었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했지만, 냉정하고 열정 없는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고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배웁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Smyrna

The church in Smyrna was facing intense persecution. The Lord Jesus has nothing negative to say about them. They are warned that tough times are ahead and they must not buckle or fold. If they endure the coming persecution they will be rewarded. We learn from this church that the Christian life will have difficulties. We may at times be tempted to give in, or even to quit but the call is to rest in Christ and stay strong. We must remain faithful unto death.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교회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시련이 다가오고 있으니 넘어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박해를 견뎌낸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강건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Pergamos

The church in Pergamos was a worldly church. On the positive side they clung to the name of Jesus and did not give in despite facing trials and tribulations. The negative however far outweighed the good. The church wanted to compromise in order to fit in (avoid conflict) with the pagan world. In doing this they tolerated evil. We learn from this church that we are supposed to be different or special. God expects us to stand against the wickedness of Satan's world. Through the world may hate and persecute us we are not to succumb to this pressure.

버가모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좋은 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시련과 고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교회는 이교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갈등을 피하기 위해) 타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을 용납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우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Thyatira

The church in Thyatira had become corrupted. They receive praise from the Lord for their love, service, faith and patience. In all of these areas they had grown over time. This is a good thing and something we should seek to emulate. We should be becoming more Christlike over time. However they receive strong condemnation for allowing a false prophetess (false teachers and doctrine) into the church. We learn from this church the importance of holding firmly to the gospel truth. Any slight deviation or lack of attention can result in disaster.

두아디라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사랑, 봉사, 믿음, 인내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했습니다. 이는 좋은 일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여선지자(거짓 교사와 교리)를 교회에 용인한 것에 대해 강한 꾸짖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부주의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Sardis

The church in Sardis was spiritually dead. The Lord Jesus has nothing good to say about this church. Others around them may think they are doing well but Jesus disagrees. It is a church full of

the living dead. A lifeless place. They have the reputation of starting but never finishing things. Their fruit is not pleasing to the Lord. There is much we can learn from this church. How eager we are to start new things without the desire to see them to a satisfying conclusion. How easy it is to do things out of habit or tradition. We might be doing church things but spiritually our hearts are not in them. If we feel this way we must endeavour to rekindle our love and passion for Christ.

사데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 칭찬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 있는 시체들로 가득했고, 생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열망은 있지만, 그 일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지는 별관심이 없습니다. 습관 또는 전통에 따라 일을 진행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불붙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Philadelphia

The church in Philadelphia was praised for doing a great job. The Lord is pleased that they are active and engaged in evangelism. As a consequence He has nothing negative to say about them. They have shown courage and perseverance through difficult times. Again there is much for us to learn from this church. Are we as active in sharing the gospel as we should? How about our perseverance? Do we fight on, or give up when faced by the slightest resistance? We must continue to run well and fight the good fight despite all we may face.

Finally lets look at the church in Laodicea.

필라델피아 교회는 훌륭하게 사역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복음 전파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용기와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계속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작은 저항에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계속해서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Laodicea

The church in Laodicea was lukewarm or wishy-washy. It was neither hot and passionate for Christ nor was it icy cold and without life. It was at a comfortable unconcerned point in between these two extremes.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this I believe is the state of many contemporary churches. The Lord tells the Laodiceans, and indeed us if we fall into this category to repent of our indifference and become useful to Him. We learn from this, the sternest of all the letters that God expects us to be useful. The church is not a fun social club. It was established to work hard and function for God during the church age. A fruit tree is expected to bear fruit. Any branch that fails to do so is liable to be chopped off. This is the fate for churches who resemble the church in Laodicea. May that never be our fate.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거나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도, 얼음처럼 차갑고 죽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의 편안하고 무관심한 지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현대 교회들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약 우리가 또한 그렇다면, 무관심을 회개하고 그분께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가장 엄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교회는 즐거운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기능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과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은 교회들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결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And so we come to the end of our study of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I hope that you have found the study to have been interesting and enlightening. But far more than that I hope you have fully appreciated the love that the Lord Jesus has for His church, for us and how much He desires that we live to serve and please Him.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한 공부를 마칩니다. 이 공부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